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연 주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연 주

# 인 준 서

이연주의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의 7개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17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관계형성(3.96)과 대인관계능력의 신뢰감 형성(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바이올린 단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관계형성( $t=1.843$ ,  $p=0.069$ ,  $p<.1$ )과 권리주장( $t=2.055$ ,  $p=0.043$ ,  $p<.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형성과 권리주장 점수를 보였으며, 이것은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바이올린 단원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공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권리주장( $F=2.307$ ,  $p=0.060$ ,  $p<.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전공이 가장 높은 권리주장을 보였으며, 예체능이 가장 낮은 권리주장 점수를 나타냈다.

넷째, 악기군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서는 관계자신감( $F=3.500$ ,  $p=0.009$ ,  $p<.01$ )과 자기표현( $F=2.779$ ,  $p=0.029$ ,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관악기가 가장 높은 관계자신감과 자기표현을 나타냈고 타악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중에서 금관악기 연주자가 가장 높은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보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활동기간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서는 관계자신감( $t=2.080$ ,  $p=0.039$ ,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기간 2년 이상의 단원들이 2년 미만 활동한 경우보다 관계자신감이 낮았다.

여섯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모두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관계형성과 권리주장간의 상관관계수(0.621)가 가장 높았으며 타인지향과 상호관리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0.207)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선행연구 고찰 .....	3
<b>II. 이론적 배경</b> .....	7
1.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	7
2. 사회적 자기효능감 .....	12
3. 대인관계능력 .....	18
<b>III. 연구방법</b> .....	26
1. 연구대상 .....	26
2. 연구절차 .....	27
3. 연구도구 .....	28
4. 자료처리 .....	37
<b>IV. 연구결과</b> .....	38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 .....	3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	42
3.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	47

V. 결론 및 제언 ..... 4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서울특별시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현황 .....	10
<표 2> 경기도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현황 .....	11
<표 3> 자기효능감 정의 .....	12
<표 4>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의 .....	15
<표 5> 대인관계능력 정의 .....	21
<표 6>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	24
<표 7> 연구대상의 일반사항 .....	26
<표 8> 연구절차 .....	28
<표 9> 설문지 문항 분류표 .....	29
<표 10>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뢰도 검토 .....	31
<표 11> 표본적합도 및 구형성 검정 결과 .....	32
<표 12>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구조행렬 .....	33
<표 13> 대인관계능력 척도 신뢰도 검토 .....	34
<표 14> 표본적합도 및 구형성 검정 결과 .....	35
<표 15> 대인관계능력 요인구조행렬 .....	36
<표 16> 통계용어 정리 .....	37
<표 1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	39
<표 18>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 .....	40
<표 19> 대인관계능력 수준 .....	41
<표 20> 바이올린 중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	42
<표 21> 전공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	43
<표 22> 악기군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	45

<표 23> 활동기간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	46
<표 24>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 .....	47

## 그림 목 차

[그림 1] 자기효능감의 가설적 위계구조 .....	15
[그림 2]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 .....	2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펼쳐진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진화과정에서부터 서로 집단을 이루며 협동적인 관계를 통해 생존해왔다. 집단생활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생물학적 조건은 인간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져온 것이다.<sup>1)</sup> 인간은 부모, 형제, 부부와 같이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부터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사고와 감정, 태도,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sup>2)</sup>

인간은 성장하면서 대인관계를 키워나간다. 그 과정 속에서도 특히 성인기 초기단계에 위치한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성인기 초기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것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발달단계이다.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인간은 고립감, 공허감 등의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즉, 대학생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제를 수행해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대인관계 형성은 대학생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1) 권석만(201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p.26

2) 이동원, 박옥희(2003). 사회심리학. 학지사. p.3

3) 권석만(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Vol.30 No.1 p.38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심리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sup>4)</sup>

대학환경에서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학과, 동문회, 동아리 등 다양한 집단에서 자기에게 맞는 동료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친구, 선배, 후배, 교수 등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속에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sup>5)</sup> 여러 동아리 중에서도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합주를 위해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여러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하며 구성원의 바람직한 사회성 형성과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6)</sup>

현재까지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오케스트라 활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대학생으로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오케스트라 현황과 구성원의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측면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4)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Vol.27 No.2 p.264

5) 박한샘(2004). 사회적 유능성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Vol.18 p.57

6) 최수이, 김경호(2015). 오케스트라 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6 No.4 p.26

##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3.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음악활동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음악활동과 대인관계능력 등을 논의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진<sup>7)</sup>은 서울, 경기 소재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기간과 연주경험 횟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그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여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

7) 김현진(2018).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초혜<sup>8)</sup>는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실태와 인식, 활동 경험을 조사하여 그로인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케스트라 동아리 구성원들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흥미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연주 실력이 향상되고 음악에 대해 심미적 체험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김영은·이은희<sup>9)</sup>는 청소년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며, 음악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다른 단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단원들에게 소중한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합주를 통한 음악적 소양과 기술의 향상은 단원들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효능감과 직결되는 것으로 단원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성공 경험을 얻음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양종모<sup>10)</sup>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성의 주요인을 자아존중감, 성취감, 사회성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사회성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조아영<sup>11)</sup>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오케스트라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로는 집단정체성, 의사소통, 사회화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

8) 양초혜(2017).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구성원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9) 김영은, 이은희(2013).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Vol.15 No.2 pp.121-152

10) 양종모(2012).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음악교육연구. Vol.41 No.2 pp.227-255

11) 조아영(2017).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의 사회적 관계. 음악교육연구. Vol.46 No.2 pp.131-156

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는 1학년의 집단정체성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주 경험기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는 연주 경험기간이 6년 이상일 경우가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복음<sup>12)</sup>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육 경험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음악교육 유무에 따른 유년기 학생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음악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음악학습의 시기가 빠를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학습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승원<sup>13)</sup>은 합창음악교육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합창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합창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높았으며, 7개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미정<sup>14)</sup>은 초등학교 4학년 23명을 대상으로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음악지능과 대인관계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대인관계지능 검사 결과,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인관계지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지능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타인이해능력, 사교성 순으로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지능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

12) 이복음(2015). 유년기의 음악교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3) 정승원(2015). 합창음악교육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4) 고미정(2015).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4학년 음악수업이 음악지능 및 대인관계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선행연구를 통하여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인식조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음악활동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과 단원들의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음악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음악활동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합창음악교육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대인관계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 1)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특징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대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이다. 동아리란 같은 취미나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것으로, 공동의 이해와 전문적인 기능 등을 나누는 자치기구이다. 대학 생활의 꽃으로 표현되는 동아리 활동은 그만큼 대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sup>15)</sup>

음악 동아리 중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의 조화를 형성해내는 단체적인 조직으로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동아리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는 구성원들의 목표와 경험을 공유하여 공통의 음악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므로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연주에 참여한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단원들은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단체 속에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 음악 비전공자들로 형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는 전문가들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

15) 장미내, 장경근(2015). 대학생활의 날개를 달아줄게. 신원문화사. p.60

16) 조아영(2017).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의 사회적 관계 연구. 음악교육연구. Vol.46 No.2 p.132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무대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은 음악의 완성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범주를 뛰어넘어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인간에게 심미와 가치, 감성적인 정서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시되어야 한다. 즉, 인간에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동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부분에서 오케스트라는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병철<sup>19)</sup>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음악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비경쟁적인 성취를 통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아와 높은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수이<sup>20)</sup>는 음악활동이 연주자의 잠재된 의식을 드러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집단적 음악활동은 개인과 타인의 연결을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통합하여 공통된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만하고 안전한 상호작용은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생각과 강화를 통해 사회적 행동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sup>21)</sup>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집중력과 성공경험, 끈기 있는 태도 등이 인간의 음악적 성취를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22)</sup>

17) 조민근, 이지열, 이철원(2018). 국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여가몰입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여가학연구. Vol.16 No.2 p.2

18) 신연숙(2012). 지역사회 성인학습자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참여동기 탐색. 교육연구논총. Vol.33 No.2 p.168

19) 최병철(2015). 음악치료학. 학지사. p.151

20) 최수이, 김경호(2015). 오케스트라 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6 No.4 p.26

21) 김영은, 이은희(2013).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Vol.15 No.2 p.122

22) 정익중, 조은아, 안은미(2018). 음악성취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오케스트라 활동 만

오케스트라 활동은 원만한 인간성을 기르는데 궁극적인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특성이 자신의 소리를 다른 사람의 연주 선율과 리듬을 들으며 적절하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케스트라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행동의 연장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배려하고 협동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고 높은 성취감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체적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악활동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2)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현황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총 71개 대학교에서 99개의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서울 소재는 28개 대학교에서 41개의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 소재는 9개 대학교에서 11개의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

---

죽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Vol.16 No.2 p.19

23) 송진범(2016).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예술교육연구. Vol.14 No.4 p.130

<표 1> 서울특별시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현황

학교명	단체명	참여자격
가톨릭대학교	예향	의대생
건국대학교	KU Philharmonic	학부생
경희대학교	Musique De Orchestra Philharmonique	학부생
	Kyung Hee Medical Orchestra	의대생
	Medical Orchestra	치대생
	선음	한의대생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Orchestra	학부생
	Korea University Medical Orchestra	의대생
광운대학교	DaKAPO	학부생
국민대학교	Philharmonia Eterna Kookmin	학부생
동국대학교	OPUS	학부생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Pharmacy Orchestra	약대생
덕성여자대학교	Concerto Grosso	약대생
서강대학교	ACES	학부생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Philharmonic Orchestra	학부생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Orchestra	의대생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Orchestra	치대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rchestra	학부생
서울교육대학교	EDU Philharmonic	학부생
서울시립대학교	Cantabile Orchestra	학부생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 University Amateur Orchestra	학부생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Orchestra	학부생
	Crescendo Orchestra	의대생
성신여자대학교	Crystal Orchestra	학부생
세종대학교	ZIUM Orchestra	학부생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Orchestra Philharmonique des Amateurs	학부생

숭실대학교	AbandonneSS	학부생
연세대학교	EUPHONIA	학부생
	Yonsei Dental Philharmonic Orchestra	치대생
	Severance Orchestra	의대생
육군사관학교	관현악부	학부생
이화여자대학교	Ewha Symphonious Amateur Orchestra Sounds	학부생
	Ewha Pharmacy Orchestra	약대생
	Ewha Medical Orchestra	의대생
중앙대학교	RUBATO	학부생
	ORPHEUS	의대생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ilharmonic Orchestra	학부생
한성대학교	MGOP Hansung Orchestra	학부생
한양대학교	HANAKLANG	학부생
	CHIRON	의대생
홍익대학교	HIAMO	학부생

<표 2> 경기도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현황

학교명	단체명	참여자격
경희대학교	Kyunghee University Chamver Orchestra	학부생
경기대학교	CHAMBER	학부생
단국대학교	ZADRAK	학부생
	Medical Chamber	의대생
	Dentharmonics	치대생
명지대학교	STACCATO	학부생
아주대학교	AJOU Pops Orchestra	학부생
	Medic Chamber	의대생
차의과학대학교	CHA Chamber	학부생
한국외국어대학교	Master Piece	학부생
한국항공대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Amateur Orchestra	학부생
한양대학교	ANGELUS	학부생

## 2. 사회적 자기효능감

### 1) 자기효능감 개념

자기효능감은 Bandura<sup>24)</sup>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행동절차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이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자기효능감 정의

연구자	정 의
Bandura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행동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
박시옥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해 믿는 마음
김아영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이운신, 박성희, 김종경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달성해 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24) Albert Bandura(1995). 자기 효능감과 인간행동. 교육과학사. p.46

## 2) 자기효능감 형성과정

Bandura<sup>25)</sup>는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개인의 신념은 자신에 대해 지식의 주요한 측면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효능감은 효능감 정보의 주요한 네 가지의 요소로부터 형성되며, 그것은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이다.

첫째, 성공경험은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이다. 성공은 효능감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형성하며, 성공경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증거를 제공한다. 실패는 효능감을 약화시키고, 특히 효능감이 크게 형성되기 전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를 더욱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성공경험은 다른 요소보다 더욱 효능감을 산출하고 강화시키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생활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자기조절을 획득하는 것이다.

둘째, 대리적 경험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얻는 정보로 모방된 성취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대리경험은 모델링을 통해 개인효능감을 촉진시킨다. 모델링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 역시 유사한 활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관찰자의 생각을 고양시킨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자기도 행동을 높일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형태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

셋째, 언어적 설득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며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설득력 있게 격려하는 것은 사람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자기 확신적인 신념은 기술과 효능감의

---

25) Albert Bandura(1995).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교육과학사. pp.183-184

발달을 촉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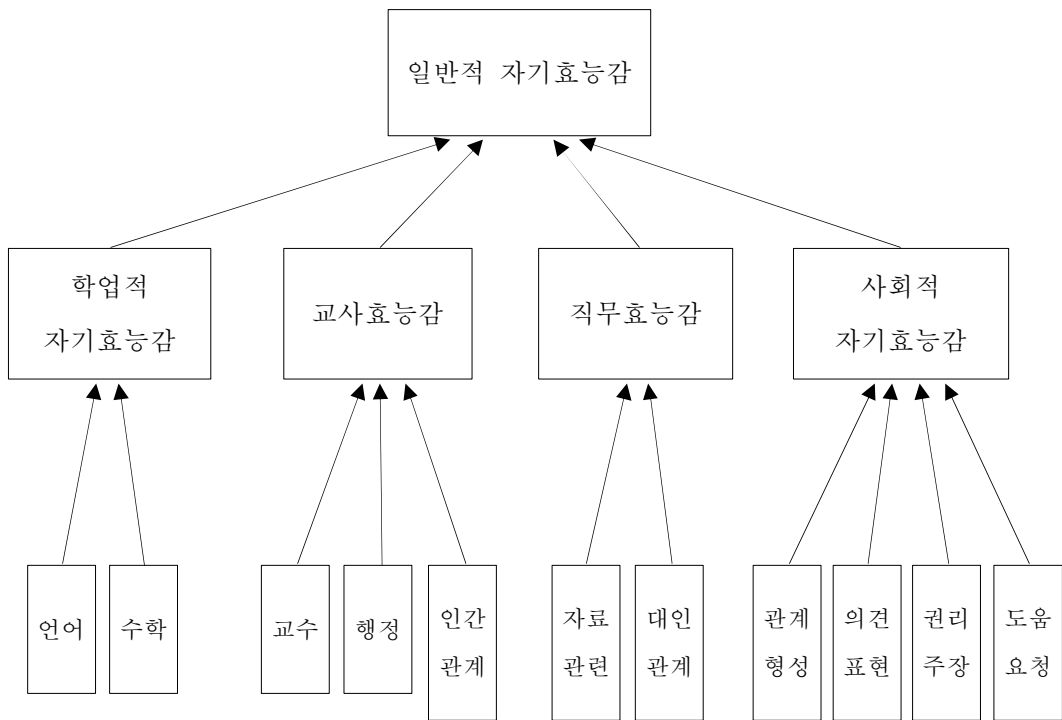
넷째,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에 자기 각성 수준과 정서 등 신체적 정보에 의해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상태를 증진시키고,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적정수준의 활성화를 통해 신체적 상태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정의를 사회적 맥락에 국한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기효능감 중에서 사회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

26)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Vol.27 No.2 p.266



[그림 1] 자기효능감의 가설적 위계구조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정의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의

연구자	정의
강한아, 김아영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최인선, 최한나	자기에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행동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상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
이현옥, 구양숙	자기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하여 자신감을 나타내고 인간의 생각과 동기, 행동을 지배
Fan, Mak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에 대한 개인의 기대
Krasner & Rubin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행위
Hartup	또래들과 원만하게 사회적 상호작용 하는 능력
Smith, Betz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상황 참여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자신감
White	인간이 주변 환경과 효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능력

#### 4)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한 강한아, 김아영<sup>27)</sup>은 문헌검토를 통해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관계형성, 권리주장, 의견표현, 도움요청으로 보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또한 적정 수준으로 개인차를 변별하는 데에 적절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네 가지의 요인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강한아·김아영,

27)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Vol.27 No.2 pp.268-269

조은미·박해임·천성문<sup>28)</sup>, 이애화·이재도<sup>29)</sup>, 홍솔지·최윤경<sup>30)</sup>의 연구에서 공통되는 관계형성, 권리주장, 의견표현, 도움요청을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첫째, 관계형성은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이다.<sup>31)</sup>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무수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형성은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하며,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권리주장은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혜롭게 표현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의견표현은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이나 감정 등을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원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도움요청은 개인이 곤란한 상황이나 문제 상황,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움요청의 절차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대처능력과 타인의 도움에 대해 생각한 후 다양한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

28) 조은미, 박해임, 천성문(2018). 대학 신입생의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Vol.42 No.1 p.182

29) 이애화, 이재도(2017). 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논총. Vol.38 No.2 p.67

30) 홍솔지, 최윤경(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1 No.2 p.44

31) 이형득(1998).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pp.169-171

### 3. 대인관계능력

#### 1) 대인관계능력 개념

대학생의 시기는 청년기 전기에 속하며 인간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대학입시라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인간관계의 욕구를 발산하여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sup>32)</sup>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단위의 관계망 속에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간다. 하지만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스스로 찾아 나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넓혀나가며 대인관계를 공고히 다지며 적응해나가야 한다.<sup>33)</sup>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과 깊이 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하게 겪게 되는 대인관계 경험은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특히 중요하다.<sup>34)</sup>

대인관계는 교육학용어사전<sup>35)</sup>에 따르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는 인간의 감정적인 면과 심리,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적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고려된 관계인 것이다.

이형득<sup>36)</sup>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상호지배적인 요소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사회적이고 관계적 존재인 인간은 주변 구성원들

---

32) 권석만(201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p.34

33) 박한샘(2004). 사회적 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Vol.18 p.55

34) 권석만(2010). *인생의 제 2막 대학생생활*. 학지사. pp.103-104

35) 현중익, 이학춘(2002).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남기획. pp.182, 479

36) 이형득, 한상철(1995). *인간이해와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137

과 관계를 통해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차 심리적인 결속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인 연결을 대인관계라고 정의한다.<sup>37)</sup>

이동원과 박옥희<sup>38)</sup>는 대인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상호작용은 한 사람이 타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와 이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행위와 사회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안범희<sup>39)</sup>는 대부분의 인간행위가 인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적인 행동으로 보았으며, 이형득<sup>40)</sup>은 대인관계에 대하여 면식이 있는 관계, 우정, 의미 있는 관계, 애정이 있는 관계 등의 형태가 있다고 보았다.

김명소 외<sup>41)</sup>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정서, 사고, 행동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행을 예측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같은 측면에서 송윤희<sup>42)</sup>는 대인관계능력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구분하였다.

권석만<sup>43)</sup>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왔으며, 공동체의 교육체계와 양육방식은 인간의 사회성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구조는 인간이 다양한 사람과 복잡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인간을

37) 정방자, 최경희(2000). 대인관계와 정신역동. 대구: 이문. p.19

38) 이동원, 박옥희(2003). 사회심리학. 학지사. p.217

39) 안범희(1979). 對人關係의 理論考察 : 新프로이드학파의 이론 및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원우론집. Vol.7 No.1 p.63

40) 이형득, 한상철(1995). 인간이해와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p.143-146

41) 김명소, 김명언, 이도형(1996). 산업장면에서의 실용적 지능/능력.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Vol.9 No.1 p.120

42) 송윤희(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 비교. 융합정보논문지. Vol.7 No.3 p.149

43) 권석만(2018).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p.29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대인관계능력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대인관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이 있다. 이무근<sup>44)</sup>은 직업기초능력에서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조직인으로서 자신을 적절히 관리하며 타인과의 원만한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보았으며, 양야기<sup>45)</sup>는 대인관계능력이 직업적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으로, 문제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NCS<sup>46)</sup>는 대인관계 능력을 사회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고, 조직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직업적 측면에서 인간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 함양이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대인관계능력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은 <표 5>와 같다.

---

44) 이무근 외(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職業教育研究. Vol.16 No.2 p.115

45) 양야기(2018).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  
본간호학회지. Vol.25 No.2 p.100

46) 김양(2017). 대인관계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대인관계능력. 서울: 영민. p.13

<표 5> 대인관계능력 정의

연구자	정의
이형득, 한상철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상호지배적인 요소를 내포함
정방자, 최경희	인간이 주변 구성원들과 관계를 통해 집단 속에서 살아가며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차 심리적인 결속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인 연결
이동원, 박옥희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됨
김명소, 김명언, 이도형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정서, 사고, 행동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행을 예측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송윤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무근	조직인으로서 자신을 적절히 관리하며 타인과의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양야기	직업적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
김양	사회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고, 조직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
김말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는 개인의 심리적 지향성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이란, 타인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의 직업적 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조직 내에서 협조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내에서 구성원들의 대인관계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의 개념을 다른 사람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으로 보았다.

## 2) 대인관계능력 형성과정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집단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은 자기이해, 타인인지와 공감적 이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공유적인 사회지식의 기반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서봉연<sup>47)</sup>과 김기정·이정희<sup>48)</sup>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이해는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기이해란,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과 행동, 느낌, 가치관, 상태 등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으로, 개인의 내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기이해는 자신이 스스로 지각하게 된 것과 타인이 나를 지각하는 것에 차이가 없을 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며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

47) 서봉연, 황상민, 김정옥(1994). 사회인지 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學生研究. Vol.29 No.1 pp.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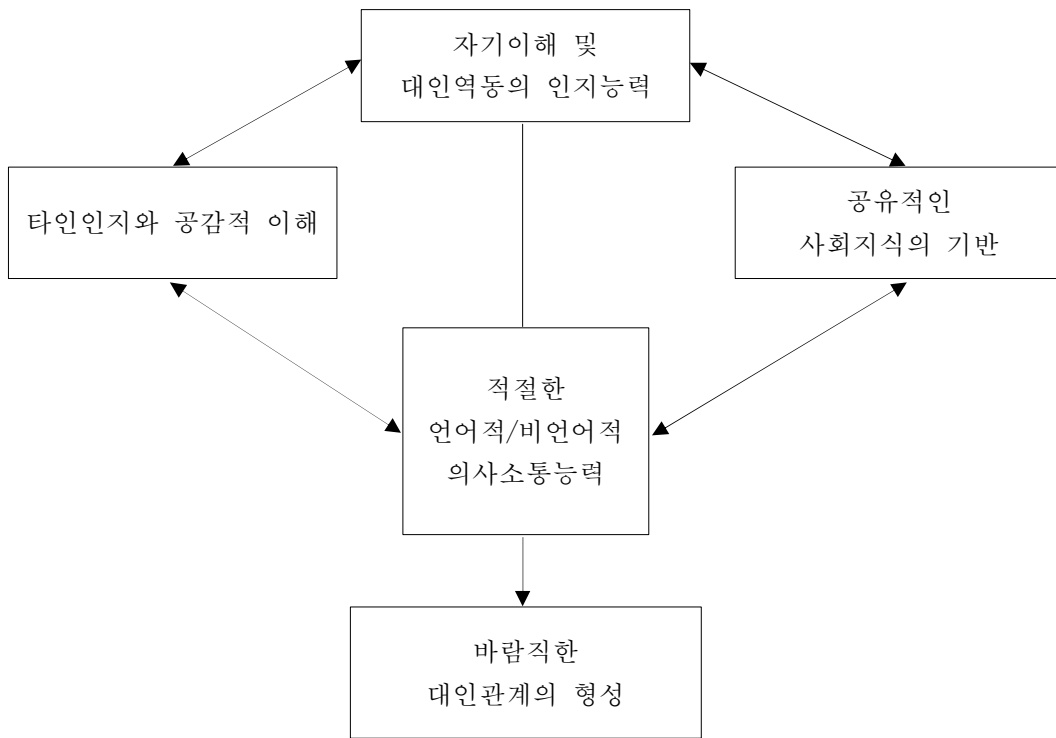
48) 김기정, 이정희(1999).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학생생활연구.Vol.17 pp.23-25

둘째, 타인인지와 공감적 이해이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타인을 인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의도, 행동 등에 대하여 조망을 갖는다는 것으로, 특히 타인에 대한 정서적 경험의 이해는 공감과 관련이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셋째,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개념, 지식 등의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표정, 눈짓, 자세, 말의 억양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어적 의사소통과 동시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무언의 정보에도 주의집중을 기울여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넷째, 공유적인 사회지식의 기반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규범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공유적인 지식들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이상의 기본요소가 올바르게 구성되어야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

### 3)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국내외에서 연구된 대인관계능력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을 정리한 것은 <표 6>과 같다.

<표 6>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연구자	하위요인
Schlein & Guerney	만족감, 의사소통, 친근감, 신뢰감, 민감성, 이해성, 개방성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처음 관계 맺기, 정서적지지, 자기노출, 권리주장, 대인갈등 다루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서적 유대, 협력, 리더십, 중재, 조직에 대한 이해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	관계에 대한 자신감, 자기표현, 타인지향, 신뢰감 형성, 상호작용관리
이무근 외	원만한 대인관계, 갈등관리, 팀워크와 리더쉽, 자기관리

이 연구에서는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sup>49)</sup>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에서 제시한 대인관계능력 총 5개의 하위영역인 관계자신감, 신뢰감형성, 타인지향, 상호작용 관리, 자기표현을 이 연구에서의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첫째, 관계자신감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뢰감 형성은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등의 행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타인지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넷째, 상호작용 관리는 타인의 부탁이나 요청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보며 일을 진행하는 등 나와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자기표현은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 가치관에 대하여 잘 알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49)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Vol.24 No.4 p.729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 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제외하여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75명으로,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 사항은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대상의 일반사항

구분	인원 수	분석에 사용된 수
A오케스트라	23	23
B오케스트라	31	30
C오케스트라	28	28
D오케스트라	33	33
E오케스트라	11	11
F오케스트라	25	25
G오케스트라	24	24
합계	175	174

## 2. 연구절차

이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준비, 설계, 실행, 분석, 정리의 다섯 단계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 검토를 하였다.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는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구 대상을 섭외하였으며,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강한아·김아영<sup>50)</sup>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박선우·설정희·천성문<sup>51)</sup>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수정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소재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총 7곳에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응답한 자료를 통계 분석 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결과를 해석 및 정리하여 연구결과를 작성하고 최종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표 8>과 같다.

---

50)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Vol.27 No.2 pp.263-283

51)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Vol.24 No.4 pp.723-738

<표 8> 연구절차

연구단계	연구내용	연구기간
준비	연구주제 선정	2018년 3월-6월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검토	
설계	연구목적 연구문제 설정	2018년 6월-7월
	연구계획 수립	
실행	연구 대상 섭외	2018년 8월-2019년 1월
	설문지 제작	
	설문지 타당도 신뢰도 검증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분석	자료 통계 분석	2019년 1월-3월
	결과 도출	
정리	결과 해석 및 정리	2018년 3월-5월
	연구결과 작성	
	최종 수정 및 보완	

### 3. 연구도구

이 연구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일반적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3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신뢰도 검토를 통해 개별항목과 전체 항목의 상관관계가 기준치인 0.30에 미달하는 3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30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9> 설문지 문항 분류표

분류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6	1	6
	학년		2	
	전공		3	
	악기		4	
	악기군		5	
	활동기간		6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계형성	4	1,2,3,4	7
	권리주장	3	5,6,7	
대인관계능력	관계자신감	5	1,2,3,4,7	16
	타인지향	5	6,8,9,10,11	
	상호관리	4	13,14,15,16	
	자기표현	2	17,18	
총 문항				30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성별, 학년, 전공, 악기, 악기군, 활동기간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 2)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이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강한아·김아영<sup>52)</sup>이 개발한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관계형성 및 유지, 권리주장, 도움요청, 의견표현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6점 척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대인관계능력 척도와 통일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와 해당 문항 제거시  $\alpha$ 계수를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지표와 그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로 구성되어있는 척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수정된 부분과 전체 항목의 상관관계(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ITC)를 알아보았다. CITC는 개별문항과 나머지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CITC가 낮다면 해당 문항은 다른 문항과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CITC는 0.30 이상을 기준으로 본다.<sup>53)</sup>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표 10>과 같다.

---

52)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Vol.27 No.2 pp.263-283

53) 이종환(2008).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고양: 공동체. pp.373-374

<표 10>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뢰도 검토

	항목	신뢰도	
		CITC	제거시 α계수
사회적 자기효능감	1)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여도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812	.808
	2)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632	.831
	3)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생각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788	.810
	4)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만의 대화 기술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	.701	.822
	5) 나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배려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733	.817
	6) 사람들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나의 의견을 당당히 밝힐 수 있다.	.641	.828
	7) 나는 나만의 대화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590	.835
	8)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042	.906

※사회적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 0.852

사회적 자기효능감 Cronbach's α계수가 0.852으로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만,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8)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의 문항이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기준치 0.30에 미달(0.042)되어 이 문항은 다른 문항과의 상관성을 보이지 못하므로 제거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가 부족한 문항을 제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잠재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표본적합도 및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사회적 자기효능감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79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Approx. $x^2$	1078.830
	df	21
	p	.000***

먼저 표본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 MSA)는 0.799로서, ‘꽤 높은 편인 값(Meritorious)’의 기준을 부합하고 있었다. 표본적합도 기준은 0.90이상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값, 0.80이상~0.90미만은 꽤 높은 편인 값, 0.70이상~0.80미만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값, 0.60이상~0.70미만은 보통 정도의 값, 0.50이상~0.60미만은 약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값, 0.40이상~0.50미만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54)</sup>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1078.830$ ,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요인구조행렬은 <표 12>와 같다.

54)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석정 p.20

<표 12>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구조행렬

사회적 자기효능감			
항목	공통성	성분	
		1	2
(3)	.858	.859	
(1)	.858	.849	
(2)	.726	.839	
(4)	.760	.822	
(6)	.919		.940
(5)	.928		.911
(7)	.506		.567
요인명		관계형성	권리주장
고유값		4.502	1.053
분산비율		64.315	15.050
누적분산비		64.315	79.365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관계형성’ 및 ‘권리주장’으로 명명할 수 있다.

### 3) 대인관계능력 척도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우·설정희·천성문<sup>55)</sup>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총 22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관계에 대한 자신감 7문항, 신뢰감 형성 6문항, 타인지향 6문항, 상호작용관리 9문항, 자기표현 3문항으로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의 점수가 높을 만큼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5)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Vol.24 No.4 pp.723-738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와 해당 문항 제거시  $\alpha$ 계수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대인관계능력 척도 신뢰도 검토

	항목	신뢰도	
		CITC	제거시 $\alpha$ 계수
대인관계 능력	1)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	.416	.764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592	.750
	3)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	.305	.774
	4)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465	.762
	5)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050	.787
	6) 나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킨다.	.167	.779
	7)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편이다.	.515	.760
	8)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 대로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66	.763
	9) 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409	.765
	10) 다른 사람들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려고 한다.	.402	.768
	11)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배려하고자 한다.	.400	.768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신경이 쓰인다.	-.021	.796
	1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나의 속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편이다.	.350	.770

14)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343	.770
15)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면 막막하고 부담스럽다.	.336	.771
16)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잘 표현한다.	.546	.755
17) 나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유머를 잘 사용한다.	.410	.765
18) 나는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	.344	.770

※대인관계능력 Cronbach's  $\alpha = 0.926$

대인관계능력 Cronbach's  $\alpha$ 계수가 0.926으로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만, 대인관계능력 척도에서 '5)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이 쓰인다.'문항과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050, -0.021으로 기준치인 0.30에 미달되어 다른 문항과의 상관성을 보이지 못하므로 제거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의 신뢰도가 부족한 문항을 제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표본적합도 및 구형성 검정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표본적합도 및 구형성 검정 결과

구분	대인관계능력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79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Approx. $\chi^2$	742.071
	df	120
	p	.000***

먼저 표본적합도(MSA)는 0.796로서, ‘꽤 높은 편인 값(Meritorious)’의 수준을 부합하고 있었다. 단위행렬 검정에서  $x^2=742.071$ ,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요인분석이 유의미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의 요인구조 행렬은 <표 15>와 같다.

<표 15> 대인관계능력 요인구조행렬

대인관계능력					
항목	공통성	성분			
		1	2	3	4
(11)	.648	.798			
(10)	.608	.770			
(9)	.583	.727			
(8)	.447	.548			
(6)	.313	.546			
(4)	.682		.758		
(1)	.607		.727		
(3)	.454		.631		
(2)	.581		.628		
(7)	.485		.448		
(13)	.650			.794	
(15)	.480			.675	
(14)	.448			.570	
(16)	.487			.442	
(18)	.700				.827
(17)	.697				.804
요인명		타인지향	관계자신감	상호관리	자기표현
고유값		4.368	2.009	1.365	1.126
분산비율		27.297	12.555	8.534	7.039
누적분산비		27.297	39.852	48.386	55.424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은 ‘타인지향’, ‘관계자신감’, ‘상호관리’, ‘자기표현’으로 명명할 수 있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다. 측정도구인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대인관계능력 척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개별항목과 전체 항목의 상관관계(CITC)를 근거로 신뢰도가 부족한 항목을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적합도 및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1$ ,  $p^{**} < 0.05$ ,  $p^{***} < 0.01$  범위 내에서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일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년, 전공, 악기, 악기군,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검정으로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 통계용어 정리

$p$	$p$ -value. 유의확률. 연구자가 설정한 진위의 영가설에서 검정통계치를 회소 또는 극한 값으로 얻을 확률 값.
왜도	분포의 비대칭의 정도, 분포가 기울어진 방향과 그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첨도	측정치들의 형상을 대수화한 것으로, 도수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79명(45.4%), 여자는 95명(54.6%)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 23명(13.2%), 2학년 49명(28.2%), 3학년 41명(23.6%), 4학년 61명(35.1%)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는 33명(19.0%), 자연공학은 43.7%(76명), 예체능은 12.6%(22명), 의약학은 31명(17.8%), 기타 12명(6.9%)으로 나타났다. 악기에서는 바이올린이 79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튜바는 1명(0.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군으로 살펴보면, 현악기는 112명(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악기는 7명(4.0%)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에서는 6개월은 24명(13.8%), 1년은 36명(20.7%), 2년은 44명(25.3%), 3년은 24명(13.8%), 4년 이상 46명(26.4%)으로 나타났다.

<표 1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79	45.4
	여자	95	54.6
학년	1학년	23	13.2
	2학년	49	28.2
	3학년	41	23.6
	4학년	61	35.1
전공	인문사회	33	19.0
	자연공학	76	43.7
	예체능	22	12.6
	의약학	31	17.8
	기타	12	6.9
악기	바이올린	79	45.4
	비올라	10	5.7
	첼로	19	10.9
	콘트라베이스	3	1.7
	플룻	13	7.5
	오보에	4	2.3
	클라리넷	8	4.6
	바순	4	2.3
	트럼펫	10	5.7
	호른	8	4.6
	트롬본	6	3.4
	튜바	1	0.6
	타악기	3	1.7
	건반악기	4	2.3
	그 외	2	1.1
악기군	현악기	112	64.4
	목관악기	30	17.2
	금관악기	25	14.4
	타악기	3	1.7
	기타	4	2.3
활동기간	6개월	24	13.8
	1년	36	20.7
	2년	44	25.3
	3년	24	13.8
	4년이상	46	26.4

## 2) 연구대상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관계형성은 평균 3.96, 표준편차 .8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리주장은 평균 3.65, 표준편차 .959으로 나타나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관계형성이 가장 높고, 권리주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8>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관계형성	174	1	5	3.96	.820	-.785	.691
의견표현	174	1	5	3.90	.885	-.604	.135
권리주장	174	1	5	3.65	.959	-.361	-.671
도움요청	174	1	5	3.71	.885	-.668	.237
사회적 자기효능감	174	1	5	3.80	.696	-.526	.862

### 3) 연구대상의 대인관계능력 수준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하위요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신뢰감 형성은 평균이 4.15, 표준편차 .5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관리는 평균 2.60, 표준편차 .71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에서 신뢰감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대인관계능력 수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관계자신감	174	2	5	3.70	.748	-.426	-.086
신뢰감형성	174	3	5	4.15	.515	-.286	-.256
타인지향	174	3	5	4.19	.586	-.458	-.265
상호관리	174	1	5	2.60	.711	.252	-.246
자기표현	174	1	5	3.27	.913	-.206	-.262
대인관계능력	174	2	5	3.58	.432	-.165	.268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174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74명 중 바이올린 단원 79명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관계형성은  $t=1.843$ ,  $p=0.069$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관계형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권리주장은  $t=2.055$ ,  $p=0.043$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주장 점수를 보였다.

<표 20> 바이올린 중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 $n=79$ )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관계형성	남자	26	4.07	0.65	1.843(0.069*)
	여자	53	3.73	0.80	
권리주장	남자	26	3.96	0.76	2.055(0.043*)
	여자	53	3.57	0.82	
타인지향	남자	26	4.08	0.53	-1.305(0.196)
	여자	53	4.24	0.50	
관계자신감	남자	26	3.66	0.57	-.203(0.840)
	여자	53	3.69	0.71	
상호관리	남자	26	2.92	0.79	-.314(0.754)
	여자	53	2.98	0.66	
자기표현	남자	26	3.02	0.69	-1.536(0.129)
	여자	53	3.32	0.87	

$p^* < 0.1$ ,  $p^{**} < 0.05$ ,  $p^{***} < 0.01$

2) 전공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174명을 대상으로 전공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권리주장은  $F=2.307$ ,  $p=0.060$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 전공이 가장 높은 권리주장을 보였으며, 예체능이 가장 낮은 권리주장 점수를 나타냈다.

<표 21> 전공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n=174)

구분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é	
관계형성	인문사회 <sup>a</sup>	33	3.82	0.83	0.718	0.581	n/a
	자연공학 <sup>b</sup>	76	3.97	0.71			
	예체능 <sup>c</sup>	22	3.78	0.96			
	의약학 <sup>d</sup>	31	3.94	0.84			
	기타 <sup>e</sup>	12	4.19	0.80			
권리주장	인문사회 <sup>a</sup>	33	3.62	0.84	2.307	0.060*	c < e
	자연공학 <sup>b</sup>	76	3.82	0.79			
	예체능 <sup>c</sup>	22	3.45	0.98			
	의약학 <sup>d</sup>	31	3.71	0.71			
	기타 <sup>e</sup>	12	4.25	0.64			
타인지향	인문사회 <sup>a</sup>	33	4.30	0.50	0.788	0.535	n/a
	자연공학 <sup>b</sup>	76	4.16	0.51			
	예체능 <sup>c</sup>	22	4.27	0.48			
	의약학 <sup>d</sup>	31	4.12	0.53			
	기타 <sup>e</sup>	12	4.10	0.73			

관계자신감	인문사회 <sup>a</sup>	33	3.83	0.79	0.356	0.840	n/a
	자연공학 <sup>b</sup>	76	3.75	0.62			
	예체능 <sup>c</sup>	22	3.62	0.64			
	의약학 <sup>d</sup>	31	3.72	0.74			
	기타 <sup>e</sup>	12	3.80	0.59			
상호관리	인문사회 <sup>a</sup>	33	3.09	0.69	0.701	0.592	n/a
	자연공학 <sup>b</sup>	76	2.97	0.69			
	예체능 <sup>c</sup>	22	2.85	0.86			
	의약학 <sup>d</sup>	31	2.91	0.64			
	기타 <sup>e</sup>	12	3.19	0.78			
자기표현	인문사회 <sup>a</sup>	33	3.38	1.02	0.594	0.668	n/a
	자연공학 <sup>b</sup>	76	3.26	0.85			
	예체능 <sup>c</sup>	22	3.20	1.00			
	의약학 <sup>d</sup>	31	3.13	0.86			
	기타 <sup>e</sup>	12	3.54	1.03			

$p^* < 0.1$ ,  $p^{**} < 0.05$ ,  $p^{***} < 0.01$

### 3) 약기군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174명을 대상으로 약기군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관계자신감은  $F=3.500$ ,  $p=0.009$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를 제외하고 금관약기가 가장 높은 관계자신감을 나타냈고 타약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표현은  $F=2.779$ ,  $p=0.029$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금관약기가 가장 높은 자기표현을 보였고 타약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22> 악기군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n=174)

구분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é	
관계형성	현악기 <sup>a</sup>	112	3.92	0.73	1.748	0.142	n/a
	목관악기 <sup>b</sup>	30	3.92	1.01			
	금관악기 <sup>c</sup>	25	4.14	0.66			
	타악기 <sup>d</sup>	3	2.92	1.38			
	기타 <sup>e</sup>	4	3.75	0.79			
권리주장	현악기 <sup>a</sup>	112	3.76	0.78	1.375	0.245	n/a
	목관악기 <sup>b</sup>	30	3.57	0.96			
	금관악기 <sup>c</sup>	25	3.99	0.77			
	타악기 <sup>d</sup>	3	3.11	0.77			
	기타 <sup>e</sup>	4	3.75	0.92			
타인지향	현악기 <sup>a</sup>	112	4.19	0.51	0.315	0.868	n/a
	목관악기 <sup>b</sup>	30	4.15	0.55			
	금관악기 <sup>c</sup>	25	4.26	0.52			
	타악기 <sup>d</sup>	3	4.00	1.00			
	기타 <sup>e</sup>	4	4.30	0.48			
관계자신감	현악기 <sup>a</sup>	112	3.74	0.65	3.500	0.009***	d < e
	목관악기 <sup>b</sup>	30	3.71	0.70			
	금관악기 <sup>c</sup>	25	3.94	0.61			
	타악기 <sup>d</sup>	3	2.47	0.64			
	기타 <sup>e</sup>	4	3.95	0.77			
상호관리	현악기 <sup>a</sup>	112	2.98	0.68	0.322	0.863	n/a
	목관악기 <sup>b</sup>	30	2.93	0.84			
	금관악기 <sup>c</sup>	25	3.09	0.69			
	타악기 <sup>d</sup>	3	2.67	0.52			
	기타 <sup>e</sup>	4	3.00	0.94			
자기표현	현악기 <sup>a</sup>	112	3.29	0.87	2.779	0.029**	n/a
	목관악기 <sup>b</sup>	30	2.97	1.00			
	금관악기 <sup>c</sup>	25	3.64	0.84			
	타악기 <sup>d</sup>	3	2.33	0.29			
	기타 <sup>e</sup>	4	3.38	1.25			

$p^* < 0.1$ ,  $p^{**} < 0.05$ ,  $p^{***} < 0.01$

4)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174명을 대상으로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활동기간 6개월·1년을 2년 미만, 활동기간 2년·3년·4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범주를 묶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계자신감은  $t=2.080$ ,  $p=0.03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기간은 2년 미만이 2년 이상 활동한 경우 보다 관계자신감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활동기간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 (n=174)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관계형성	2년 미만	60	3.87	0.83	-.740(0.460)
	2년 이상	114	3.96	0.78	
권리주장	2년 미만	60	3.63	0.81	-1.401(0.163)
	2년 이상	114	3.81	0.82	
타인지향	2년 미만	60	4.21	0.55	.391(0.697)
	2년 이상	114	4.18	0.51	
관계자신감	2년 미만	60	3.89	0.69	2.080(0.039**)
	2년 이상	114	3.67	0.66	
상호관리	2년 미만	60	2.97	0.77	.504(0.858)
	2년 이상	114	2.99	0.68	
자기표현	2년 미만	60	3.22	0.97	-.559(0.577)
	2년 이상	114	3.30	0.89	

$p^* < 0.1$ ,  $p^{**} < 0.05$ ,  $p^{***} < 0.01$

### 3.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중 관계형성과 권리주장간의 상관계수가 0.621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타인지향과 상호관리가 0.207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4>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

	관계형성	권리주장	타인지향	관계자신감	상호관리	자기표현
관계형성	1					
권리주장	.621*** (.000)	1				
타인지향	.421*** (.000)	.309*** (.000)	1			
관계자신감	.422*** (.000)	.406*** (.000)	.380*** (.000)	1		
상호관리	.465*** (.000)	.511*** (.000)	.207*** (.006)	.464*** (.000)	1	
자기표현	.542*** (.000)	.390*** (.000)	.290*** (.000)	.286*** (.000)	.301*** (.000)	1

$p^* < 0.1$ ,  $p^{**} < 0.05$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소재 7개의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3.9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년기의 음악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중 신뢰감 형성(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교류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단원들 사이의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이 긍정적인 대인간 접촉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단원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셋째, 바이올린 단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관계형성( $t=1.843$ ,  $p=0.069$ ,  $p<.1$ )과 권리주장( $t=2.055$ ,  $p=0.043$ ,  $p<.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형성과 권리주장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바이올린 단원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휘자와 단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인 것이다.

넷째, 전공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권리주장( $F=2.307$ ,  $p=0.060$ ,  $p<.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 전공이 가장 높은 권리주장을 보였으며, 예체능이 가장 낮은 권리주장 점수를 나타냈다. 예체능 전공이 가장 낮은 권리주장을 보이는 것은 예체능 전공의 위계질서와 선후배 간의 비공식적인 규율이 단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악기군에서는 대인관계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관계자신감( $F=3.500$ ,  $p=0.009$ ,  $p<.01$ )과 자기표현( $F=2.779$ ,  $p=0.029$ ,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금관악기가 가장 높은 관계자신감과 자기표현을 나타냈고 타악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중에서 금관악기 연주자가 가장 높은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목관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이 가장 높은 사회성을 보였다는 선행연구<sup>56)</sup>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여섯째, 활동기간에서는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중 관계자신감( $t=2.080$ ,  $p=0.039$ ,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활동기간 2년 이상의 단원들이 2년 미만 활동한 경우보다 관계자신감이 낮았다. 활동기간이 길수록 단원들의 관계자신감이 더 낮은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의 높은 취업불안은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게 되며 효능감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sup>57)</sup>와, 오케스트라와 학업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단원들이

---

56) 김다솜(2017). 소외계층을 위한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57) 육정원, 김봉환(2017).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Vol.18 No.3. pp.111-128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에 대한 불안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오케스트라 2년 이상 활동기간을 가진 단원들이 2년 미만 활동한 경우보다 관계자신감이 낮았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일곱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모두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관계형성과 권리주장간의 상관계수(0.621)가 가장 높았으며 타인지향과 상호관리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0.207)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 중 7개의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의 악기는 현악기 112명, 목관악기 30명, 금관악기 25명, 타악기 3명, 기타 4명으로 표본의 불균등이 나타났다. 악기별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악기 표본 불균형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수준과 관계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함으로써 두 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Albert Bandura(1995).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교육과학사.
- 권석만(2010). 인생의 제 2막 대학생활. 학지사.
- 권석만(201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 김양(2017). 대인관계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대인관계능력. 서울: 영민.
- 박시옥(2018). 자기효능감: 능력에 대한 신념 성취에 대한 확신. 서울: 박영스토리
- 이동원, 박옥희(2003). 사회심리학. 학지사.
-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석정
- 이종환(2008).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고양: 공동체.
- 이형득(1998).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이형득, 한상철(1995). 인간이해와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미내, 장경근(2015). 대학생활의 날개를 달아줄게. 신원문화사.
- 정방자, 최경희(2000). 대인관계와 정신역동. 대구: 이문.
- 최병철(2015). 음악치료학. 학지사.
- 현종익, 이학춘(2002).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남기획.
- 강한아, 김아영(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  
심리연구. Vol.27 No.2 pp.263-283
- 권석만(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Vol.30 No.1 pp.38-63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Vol.28 No.3 pp.627-642
- 김기정, 이정희(1999).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학생  
생활연구.Vol.17 pp.17-37

- 김말선(2016). 의사소통 훈련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교정상담학연구. Vol.1 No.1 pp.79-101
- 김명소, 김명언, 이도형(1996). 산업장면에서의 실용적 지능/능력.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Vol.9 No.1 pp.117-137
- 김영은, 이은희(2013).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Vol.15 No.2 pp.121-152
-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Vol.24 No.4 pp.723-738
- 박한샘(2004). 사회적 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Vol.18 pp.55-83
- 서봉연, 황상민, 김정욱(1994). 사회인지 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學生研究. Vol.29 No.1 pp.69-106
- 송윤희(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 비교. 융합정보논문지. Vol.7 No.3 pp.147-152
- 송진범(2016).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예술교육연구. Vol.14 No.4 pp.127-150
- 신연숙(2012). 지역사회 성인학습자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참여동기 탐색. 교육연구논총. Vol.33 No.2 pp.167-185
- 안범희(1979). 對人關係의 理論考察 : 新프로이트학파의 이론 및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원우론집. Vol.7 No.1 pp.63-85
- 양야기(2018).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Vol.25 No.2 pp.99-108
- 양종모(2012).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음악교육연구. Vol.41 No.2 pp.227-255
- 육정원, 김봉환(2017).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 지와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Vol.18 No.3. pp.111-128
- 이무근 외(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職業教育研究. Vol.16 No.2 pp.109-129
- 이애화, 이재도(2017). 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자기 효능감, 고용가능성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논총. Vol.38 No.2 pp.59-79
- 이윤신, 박성희, 김종경(2014).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한국콘텐츠학회. Vol.14 No.6 pp.229-240
- 이현옥, 구양숙(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Vol.11 No.2 pp.271-277
- 정익중, 조은아, 안은미(2018). 음악성취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Vol.16 No.2 p.19 pp.17-31
- 조민근, 이지열, 이철원(2018). 국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참여자의 여가몰입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여가학연구. Vol.16 No.2 pp.1-22
- 조아영(2017).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의 사회적 관계. 음악교육연구. Vol.46 No.2 pp.131-156
-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Ⅱ). 한국심리학회. Vol.16 No.2 pp.233-249
- 조은미, 박해임, 천성문(2018). 대학 신입생의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사회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Vol.42 No.1 pp.175-193
- 최수이, 김경호(2015). 오케스트라 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성취도 및 만족도 조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6 No.4 pp.25-31
- 최인선, 최한나(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Vol.14 No.5 pp.2799-2815

- 홍솔지, 최윤경(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1 No.2 pp.39-60
- 고미정(2015).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4학년 음악수업이 음악지능 및 대인관계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김다솜(2017). 소외계층을 위한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진(2018).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초혜(2017).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구성원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복음(2015). 유년기의 음악교육 경험이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승원(2015). 합창음악교육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BSTRACT

### An Effect of University Musical Orchestra Activities on University Students's Social Self-Efficiency and Interpersonal Skills.

Lee, Yeon joo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social self-efficiency and interpersonal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musical orchestra activities, and thereby analyze the correlation to identify any potential influence. To achieve this purpose, 175 university orchestra members of 7 different universities around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were selected and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as run through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alysis on the statistics software SPSS Ver. 24.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social self-efficiency's 'formation of relationships' (3.96) and interpersonal skills' 'formation of trust' (4.15) showed highest results as

elements of social self-efficiency and interpersonal skills.

Secondly, out of the elements of social self-efficienc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nce was found between 'formation of relationships' ( $t=1.843$ ,  $p=0.069$ ,  $p<.1$ ) and 'claims of rights' ( $t=2.055$ ,  $p=0.043$ ,  $p<.1$ ) of violinist members. Male violinists recorded higher averages in 'formation of relationships' and 'claims of rights' compared to female violinists. Such finding indicates that among the violinists, male members had a higher sense of social self-efficiency than did the female members.

Thirdly, the level of 'claims of rights' ( $F=2.307$ ,  $p=0.060$ ,  $p<.1$ )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tudents' academic major. Students with majors in 'other' category felt recorded highest level of 'claims of rights', and students with majors in the field of 'arts and physical activities' recorded the lowest.

Fourthly, there wa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confidence in relationships' ( $F=3.500$ ,  $p=0.009$ ,  $p<.01$ ) and 'self-expression' ( $F=2.779$ ,  $p=0.029$ ,  $p<.05$ ) depending on the musical instrument of choice. Brass players recorded the highest in 'confidence in relationships' and 'self-expression', while percussion players recorded the lowest. This draws to a deduction that brass players have the highest level of interpersonal skills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play in the extracurricular orchestra.

Fifthly, the level of 'confidence in relationships' ( $t=2.080$ ,  $p=0.039$ ,  $p<.05$ )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varying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the membership in the orchestra. Those who played for 2 years or more had lower 'confidence in relationships' than those who played for less than two years.

Finally, there were no notable correlations found between all factors of social self-efficiency and interpersonal skills, showing static correlation. Of the elements, 'formation of relationships' and 'claims of right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index(0.621), and 'selflessness' and 'consideration of mutual benefit' showed the lowest correlation index (0.207).

## 부 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저는 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주신 결과에 틀리거나 맞는 답은 없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각 문항을 꼼꼼히 읽으신 후 솔직하게 정성껏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응답시간은 5분정도 소요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결과는 연구 자료로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연구자: 이연주  
E-mail: yeonju7609@hanmail.net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성별

남자 여자

2.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 전공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의약학 기타

4. 현재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타악기 건반악기 그 외

4-1. 악기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기타

5. 현재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활동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1년 2년 3년 4년 이상

※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어도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3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4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만의 대화 기술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					
5	나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배려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6	사람들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나의 의견을 당당히 밝힐 수 있다.					
7	나는 나만의 대화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8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 다음은 귀하의 **대인관계능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3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					
4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5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6	나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킨다.					
7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편이다.					
8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이를 수 있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10	다른 사람들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려고 한다.					
11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배려하고자 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신경이 쓰인다.					
1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나의 속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편이다.					
14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15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면 막막하고 부담스럽다.					
16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잘 표현한다.					
17	나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유머를 잘 사용한다.					
18	나는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					